

2024년 01월 28일 05주간

제24-05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05과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말씀 예레미야 32장 17-27절(구약p.1104)

암송구절 예레미야 32장 27절(구약p.1104)

찬 송 찬송가 10(통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21(통21)장 다 찬양하여라

본 문 이 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제한이 없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범죄하고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진노가 아니라 언제나 평안과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보충설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대로’(19절)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2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내리셨으며(23절) 결국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24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2.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예레미야 32장 24절

-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보충설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대로’(19절)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2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내리셨으며(23절) 결국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24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충설명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아인에게 넘기셨음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때로 멀게 느껴지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롬 8:28).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 이야기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와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찾아드는 모든 위험을 겁내지 않고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눔

-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상황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적용

-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